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우세유지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정 광 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4페이지)

랭전종식후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있는 적수들을 제압하고 저들의 확고한 군사적 및 경제적우세를 유지할수 있도록 무력을 증강하며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뉴대》를 더욱 강화한다는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내놓게 된것은 첫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이 완전히 밀려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된다.

랭전이 종식된 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방대한 인구와 전략자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21세기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으로 간주되였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에 아시아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이 지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사태는 미국이 바라던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우세가 허물어지게 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압력과 봉쇄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튼튼히 갖추었다. 로씨야도 랭전종식후 혼란된 국내정세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으며 특히 2000년 9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인 《포뿔-M》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라들이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우세가 허물어지게 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지위도 약화되였다.

미국은 쏘로스를 비롯한 국제금융투기업자들을 사촉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금융체제를 타격하여 경제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는 저들의 지배밑에 있는 《국제통

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장악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나라들은 미국의 흥심을 간파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더우기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로씨야가 원유와 가스를 무기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지배책동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이 지역에서 밀려날수 있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내놓게 된것은 둘째로, 저들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든것과 관련된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에서는 생산의 전반적인 침체와 감퇴가 계속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예산적자와 무역적자가 증대되었다. 특히 2007년 불량주택대부금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로 하여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제전문연구기관들에서는 미국경제가 2007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후 11번째로 되는 경기후퇴기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3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20개나 되는 주요은행들이 줄줄이 파산되었다. 은행들이 무너지는것과 함께 미국이 《아메리카의 꿈》의 상징으로 자랑하던 제너럴 모터스자동차회사가 파산당하였다. 이 회사의 파산으로 미국내에서 14개 공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되었다.

외신들은 제너럴 모터스회사의 파산이 미국공업력사상 최악의 파멸로 기록될것이라고 하면서 그 후파로 미국의 공업토대가 붕괴될수도 있다고 예고하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008년 4.4분기에만도 자동차독점체인 포드회사는 59억US\$, 필립업체인 이스트맨 코다크회사는 1억 3 700만US\$, 전기통신설비제작업체인 모터롤라회사는 36억US\$의 막대한 손실액을 내면서 련이어 파산당하였다.

때를 만난듯이 외국기업들이 련이어 미국회사들을 병합하거나 미국회사들의 주권을 대대적으로 사들였다. 로씨야의 OAO세베스탈회사는 미국에서 10위권내에 들어간다는 에스마크회사를, 벨지끄의 앙베브맥주회사는 미국의 안호이저 부쉬맥주회사를, 이스라엘의 테바제약공업회사는 미국의 바르약품회사를, 스위스의 노바티스회사는 미국의 안과병원업체인 앨콘회사를 삼켜버렸다.

영국의 한 통신은 2008년 한해동안에만도 유럽나라들이 314개, 아시아나라들이 117개, 중동 및 아프리카나라들이 33개의 미국회사들을 먹어버렸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방대한 인구와 전략자원을 가지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확립을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로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실현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한것은 군사적우세를 계속 유지하는것이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전략무력재편성, 재배치를 통하여 군사적우세를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이 노리는 태평양에 면한 아시아지역은 미국으로부터 1만km나 떨어져있다. 따라

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자면 기동성을 가진 전략무력인 항공모함전투단들과 핵동력잠수함들을 집중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해군은 현재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하고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 지중해 등에 전개되어있는 5개의 함대에 배치하고있다. 함대마다 항공모함을 끌고루 배치한다면 매개 함대에 평균 2.2척의 항공모함이 할당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서 10년내에 이 지역에 저들이 보유하고있는 항공모함의 60%에 해당하는 무력을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개의 항공모함전투단은 70~100대의 함재기를 적재한 항공모함외에 유도미싸일순양함 1~2척, 유도미싸일구축함 1~4척, 핵추진공격잠수함 1~4척 등으로 편성되며 순양함, 구축함중 일부는 《이지스》전투체계로 장비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하려는 6개의 항공모함전투단에는 비행기가 400~600대, 순양함 6~12척, 구축함 6~24척, 핵추진공격잠수함 6척이상인 포함되게 된다.

한개의 항공모함전투단만 동원되어도 웬만한 국부전쟁을 능히 치를수 있는 조건에서 6개의 항공모함전투단이면 세계대전도 얼마든지 치를수 있는 무력인셈이다.

미국은 항공모함전투단뿐아니라 전략핵동력잠수함무력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있다.

2016년 6월 중순 핵잠수함 《미씨씨피》호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한데 이어 7월에는 미싸일공격능력과 스텔스기능을 갖춘 1만 8 000t급의 초대형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어 항시적인 전투근무에 진입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라 자기의 핵전략잠수함의 60%이상을 조선반도근해역을 포함한 태평양에 집중배치하고있다.

이미 미국의 한 핵전문가는 《핵과학자회보》에 게재한 2014년 미국핵전력보고서에서 미군이 핵전략잠수함 14척을 리용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핵억제정찰활동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들의 전략무력인 항공모함전투단과 핵동력잠수함무력을 재편성, 재배치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침략군사기지들과 그 무력을 재편성, 재배치하는데 달라붙었다.

미국의 해외주둔군가운데서 태평양지역사령부는 태평양과 인디아양, 남극과 북극을 포함하여 세계인구의 약 60%와 전 지구의 52%에 해당하는 43개 나라 20개 지역을 포괄하는 1억 6 900km²를 작전구역으로 한다.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오아후섬에는 진주만을 중심으로 태평양군사령부와 태평양함대사령부, 태평양공군사령부, 태평양육군사령부, 태평양해병대사령부 등 4개 구성군사령부가 위치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라 태평양지역사령부의 군사기지들의 전략적 지위를 재평가하고 우리 나라와 로씨야의 《위협》에 《대비》하여 전략적재배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우선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과 무력을 한강이남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

2004년 7월 우리의 강력한 화력타격수단들에 겁을 먹은 미국은 서울역의 남쪽 1km 되는 곳에 위치하고있던 통산미군기지와 거기에 주둔하고있던 미군 8 000명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하고 2016년에 들어와 기지이동을 서둘러졌으며 이 기지에 남조선미국 《련합군 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미제2사단의 1려단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주일미군기지들을 재편성하기 위한 책동에도 악랄하게 매달렸다.

일본에는 홋카이도로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을 따라 요코쓰카, 사세보, 가데나 등 200여개의 미군군사기지가 설치되어있다.

미국은 이 기지들의 전략적재편성을 다그쳐나갔다. 실례로 미태평양함대소속 7함대의 입항과 탄약 및 미싸일들의 보급을 기본임무로 하던 나가사끼현의 사세보기지를 핵항공모함을 정박시키고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원유저장소와 탄약창고, 보급시설 등 각종 군사시설이 집중된 전략적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병참, 후방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던 가나가와현의 자마기지를 룡군1군단사령부의 본거지로 만들고 해군부대의 정비 및 지원, 전투기의 리착륙훈련보장을 기본임무로 하던 아즈기기지에는 항공모함전투단을 배비하였다.

미국은 또한 주일미군무력의 일부를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지역에 순환전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무력배치밀도를 기동적으로 높이려고 책동하였다.

2012년 3월 주일미군재편성계획재검토에 관한 일본과 미국의 협의에서 서태평양에서의 미해병대배치의 골격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미군은 해외에 주둔한 해병대무력가운데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제3해병원정군(약 1만 8 000~2만 1 000명)의 해병공륙임무부대를 현재의 오키나와로부터 괌도와 오스트랄리아 다윈을 포함한 3개 장소로 분산배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해병대를 각 기지에 고정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순환방식으로 움직여 기동력을 높인다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주둔미군과 주일미군기지들의 재편성, 재배치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저들의 침략군을 필리핀에 재배치하기 위한 책동에도 끈질기게 매달렸다.

1992년에 필리핀인민들의 반미감정과 기지임대료협상에서의 불일치로 100여년간 이 나라에 틀고앉아있던 침략무력을 철수시키지 않을수 없었던 미국은 여기에 또다시 저들의 무력을 배치하려고 책동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저들의 전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 지역에 전개된 무력의 재편성, 재배치에 열을 올렸다.

다음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침략적군사뿔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재균형 전략》을 실현하려고 꾀하였다.

미국의 책동은 《아시아판나토》를 조작하기 위한데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미국이 조작하려는 《아시아판나토》는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망라하는 이른바 《공동방위전선》, 《집단적안보권》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이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추종국가들까지 끌어들이는 거대한 군사뿔력이며 이 지역에서 저들의 정치, 경제적리권을 무력으로 담보하기 위한 침략의 도구이다.

《아시아판나토》조작을 위하여 미국은 우선 미, 일, 남조선사이 3각군사동맹형성을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2012년 미국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일본과 군사정보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추동한데 이어 2014년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에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 3각군사동맹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015년말에는 남조선피괴들을 사촉하여 일본반동들과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협상을 벌려놓게 함으로써 3각군사동맹조작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용납 못할 매국역적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사촉에 따라 2016년 10월 27일 피뢰정부의 한 관계자가 미국, 일본과의 정보공유를 미룰수 없다고 껴치면서 일본과의 관련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할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도쿄에서 정보공유를 위한 1차 실무협회가 진행되었다. 그후 10일만에 일본남조선사이 정보공유협정체결이 선포되었다.

《아시아판나토》조작을 위하여 미국은 또한 태평양상에서 저들의 추종국가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해나갔다.

2012년 9월초 미국방장관 파네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돌아치면서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뉴질랜드와의 군사적협조를 강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파네타의 뉴질랜드방문에 이어 2013년 5월 23일 미국무성 부장관 윌리엄 번즈, 국방성 부장관 비드 코리와 뉴질랜드 방위군 및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미국과 뉴질랜드사이의 이른바 《전략대화》라는데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또다시 공약하였다.

미국은 2013년에 들어와 오스트랄리아와 군사적뉴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도 악랄하게 매달렸다.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사이의 외무 및 국방각료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미국무장관 케리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하는데서 오스트랄리아는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이다.》라고 떠벌였으며 오스트랄리아외무상 비쇼프는 《미국이 지역에서 더욱더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은 동남아시아지역 나라들과의 쌍무적형태의 군사동맹강화에 미쳐날뛰는 한편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기여들었던 추종세력까지 《아시아판나토》에 끌어들이려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2013년 4월부터 근 60일간이나 감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저들의 추종세력까지 끌어들이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처럼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것은 첫째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핵우세가 무너져내리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기본수단은 핵무기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핵우세는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되고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여 반미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105(2016)년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의 지위에 높이 올라섰다.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핵과 수소탄은 미국이나 로씨야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개발된 최첨단핵탄이다.》, 《단 한방으로 미국의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같은 대도시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 《조선은 세계 6대 수소탄보유국이 되었다. 수소탄보유국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인 미국, 로씨야, 프랑스, 영국, 중국인데 이제 조선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로 세계가 더욱 법석 떠드는 속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미육군 참모총장이라는자는 국회상원 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할수 없다.》고 실토하였다.

로씨야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대처하여 전략로켓군과 해상핵억제력을 강화하고있다.

로씨야국방상은 《당면한 군건설문제들, 현대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현재 전략로켓군과 해상핵억제력이 현대적인 전략미싸일종합체로 장비되고있으며 장거리항공대의 비행기들이 현대화되고있다. 이렇게 되면 2021년까지 현대적인 무장장비가 72% 수준에 이르게 되며 결국에는 핵억제력이 응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로씨야 등 지역대국들의 핵억제력의 강화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우세는 무너지고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책동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것은 둘째로, 이 지역 나라들속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대처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있는 반면에 미국의 추종세력들이 떨어져나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대처하여 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합세하여나섰다.

한편 미국의 추종세력들이 점차 미국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맹우라고 하던 필리핀이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필리핀대통령은 2016년 9월 미국이 필리핀남부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필리핀이 남해에서 미국과 더이상 공동출항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로씨야무력을 미국이 보란듯이 자기 나라에 받아들였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이 지역 나라들의 핵억제력의 강화와 지역적군사협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투쟁으로 하여 파산을 면할수 없다.

실마리어 세계제패야망, 미군기지